

인터랙티브 무크형 온라인 교육 훈련을 통한 건설산업 글로벌화 역량의 강화

이성우 | 대한토목학회 회장
전 국민대학교 총장



우리나라 건설 투자는 1980년대에 크게 증가되어 현재 국내 SOC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더불어 복지 예산의 증가로 2007년을 기점으로 건설 투자가 하락세를 이어가 건설산업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은 우리 건설산업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는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건설 발주가 급격히 줄고 있어 건설업계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겼으며, Global Insight 통계를 보면 개방된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매년 10% 정도씩 늘어 2020년에는 1조 5,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OC에 대한 정부의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답은 분명해 보인다.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방법은 오로지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개개인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역량에는 건설 영역에 사용되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원활한 구사를 필두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적용 능력, 수주를 위한 각종 서식의 준

비 능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 클레임 대비 능력, 해외 업체와의 협업 능력, 물품 조달 및 구매 능력, 해외 인력 수급 및 관리 능력 등 포괄적인 글로벌 능력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화 역량을 단기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하고도 압축된 교육 훈련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교육 훈련의 적절한 도구로 인터랙티브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형 온라인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MOOC형 교육이란 MIT,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에서 출발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인 무크 형태의 일방향 온라인 교육을 더욱 향상시킨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전문적인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혁신적이며 극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식은 무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15~20분 단위의 강의를 10여 주 내외로 수강하여 한 과목을 이수하지만 쌍방향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다. 건설산업 글로벌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에 대해 압축적으로 전문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면 산업계와 개개인의 글로벌화 역량을 비교적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해외 진출 증대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CERIK